

글로벌 엔지니어링 솔루션 트렌드 '조망'

벤들리 시스템즈, 'YII 2017' 개막...전 세계 인프라 설계·시공·운영분야 전문가 참석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장의 트렌드를 조망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벤들리 시스템즈의 '더 이어 인 인프라스트럭처(YII:The Year in Infrastructure) 2017 컨퍼런스'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그렉 벤들리 CEO가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솔루션 전문가기업 벤들리 시스템즈는 10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호텔에서 열리는 YII 2017 컨퍼런스 개막에 앞서 9일 '미디어 데이'를 개최하고, 본지를 비롯한 120여명의 글로벌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엔지니어링 솔루션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YII는 전 세계 인프라 설계, 시공, 운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글로벌 컨퍼런스다.

발전, 오일·가스, 철도, 교량, 도로, 빌딩 등 인프라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운영 등 수명 주기 전체에 걸친 다양한 주제 발표와 대화형 워크숍을 통해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고, 미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특히 관련 기술과 사업을 심도 있게 조망, 프로젝트 성과와 생산성,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또 엔지니어링, 설계, 시공, 운영 분야 간 협업 증진 및 기술 혁신 모범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전 세계의 동종업계 종사자, 혁신 선구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미디어 데이에서는 ▲빌딩, 캠퍼스 ▲오일·가스, 공정, 전력 ▲도로, 철도 ▲유틸리티, 조달 등 4가지 산업별 브리핑과 함께 벤들리 시스템즈의 그렉 벤들리 CEO가 주관하는 프레스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오일·가스, 공정, 전력 분야 브리핑을 진행한 알란 키렐리 전무는 중국 후베이 일렉트릭의 충중 양수발전소와 마칭 풍력 발전 지역 등 다양한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벤들리 솔루션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알란 키렐리 전무는 "충중 양수발전소는

험난한 지형에 중형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복잡한 솔루션이 요구되던 어려운 프로젝트였다"며 "자사의 AECOsim, 프로젝트와이즈(ProjectWise), 서브스테이션(Substation) 등 다양한 빌딩정보모델링(BIM) 솔루션을 통해 약 900만 달러의 엔지니어링 비용과 3개월여의 공기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렉 벤들리 CEO는 싱가포르의 철도산업을 사례로 한 인프라 설계, 시공, 운영, 엔지니어링 등의 디지털화를 통한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렉 벤들리 CEO는 "벤들리는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철도사업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환경을 제공한다. 언제 어디서든 문체가 발생하면 오픈 레일 시스템을 통해 정보 전달과 추적관리가 가능하다"며 "특히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 설계, 시공, 운영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엔지니어 간 정보, 기록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김병일 기자 kube@

넥상스, 말련~인니 연결 해저 광케이블 수주

글로벌 전선 전문가기업 넥상스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해저 광통신케이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넥상스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연결, 지역 주민들에게 초고속 통신망을 제공하는 'SEAX-1 프로젝트'의 단기 공급체인 확화에 마린에 250km의 해저 광통신케이블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넥상스의 24-페어 언리퍼티드(URC-1) 케이블과 육상용 케이블이 사용된다.

이 시스템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지역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안전한 인터넷 연결성을 제공해줄 전망이다.

생산은 노르웨이 로그난 공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넥상스 관계자는 "SEAX-1 프로젝트는 화웨이 마린과 넥상스의 오랜 파트너십을 증명한다"며 "화웨이 마린은 URC-1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증명된 넥상스 제품의 뛰어난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김병일 기자

점"이라며 "우리는 서비스매니저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비 진단과 점검결과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태블릿PC를 지급했고, 이번 서비스카 역시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희 기자 xixi@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전용 '서비스카' 도입

사물인터넷 시대 맞춰 고객 접근성·경쟁력 강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대표 박양춘)는 현장에서 승강기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서비스매니저에게 전용차량 '서비스카'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티센크루프는 지난 9월 27일 서울 양천구 계남다목적체육관 주차장에서 열린 서비스카 출범식에서 1차 출고분 20대를 서비스매니저에게 인도했으며, 향후 협력사까지 대상을 확대해 1000여대를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서비스카 도입은 승강기 유지보수가 첨단

화하는 시대를 맞아 서비스매니저의 고객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티센크루프는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관리 서비스인 'SMART(스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정보가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장예측 시스템 'MAX(맥스)'를 2018년 국내 시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박양춘 티센크루프 대표는 "이번 서비스카 도입은 엘리베이터 서비스가 단순한 유지보수의 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 최첨단 사물인터넷(IoT)과 함께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출발

코맥스·카카오, 홈 IoT 분야 '맞손'

포괄적 협력 다짐...음성인식 시기능 카카오 I 서비스, 코맥스 기기 탑재

명문장수기업 1호로 선정된 스마트 홈 IoT 전문가기업 코맥스(대표 변봉덕)와 카카오(대표 임지훈)가 홈 IoT 분야와 관련된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고, 콘텐츠서비스, 인공지능(AI), 홈디바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코맥스와 카카오는 카카오 AI 기술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 스마트 홈 서비스'를 단독·공동주택에 공급하는 등 고객들에게 편의·안전·생활밀착형 대화 및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코맥스는 카카오의 스마트스피커 '카카오미니'와 '홈네트워크, 홈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자사의 음성인식 홈 디스플레이 '앤써'에 카카오 서비스를 담아 사용자에게 맞춤 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카카오가 구현하는 음성, 대화인식 기능은 물론 인공지능을 통한 스마트 홈 서비스를 카카오 고객들이 홈에서도 누리는 진정한 '스마트 리빙'의 일상화를 가시적으로 앞당길 것이라는 계획이다.

카카오와 코맥스의 전략적 협약은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 기업과 50년간 스마트홈 & 시큐리티 한 분야로 글로벌에서 크게 성장한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코맥스의 홈 IoT 기술력과 카카오의 콘텐츠 및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홈 디바이스, 에너지, 콘텐츠,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이라는 복안이다. 변봉덕 코맥스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홈 서비스

는 사용자가 정확·관리하고,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카카오와의 협력으로 고객에게 진정한 인공지능 스마트 홈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코맥스와 함께 카카오 I와 카카오 서비스를 일상생활 공간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누구나 일상에서 카카오의 혁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정일 기자 yunji@

과기정통부, 'IoT 진흥주간'

사물인터넷 활성화 '박차'

과기정통부(장관 김부겸)는 사물인터넷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7 사물인터넷(IoT) 진흥주간'을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한다.

올해 4회째를 맞는 IoT 진흥주간은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 IoT가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혁신성장의 핵심 기반인 사물인터넷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열린 이번 IoT 진흥주간에는 국제전시회, 국제컨퍼런스, IoT 쇼케이스(비즈니스 상담회), 산업사물인터넷(IIoT) 세미나 등을 비롯한 12개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10, 11일에는 인텔,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국제단체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가 회원사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한 'IoT코리아데이'를 개최했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국제전시회에는 SKT, KT, LG U+ 등 통신 3사를 비롯한 국내외 200여개 기업이 참가해 제

조, 건설, 가전, 의료, 에너지 등 전산업 적용 서비스와 제품을 전시·시연했다.

12일 열리는 사물인터넷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제조, 환경, 에너지 등 12개 공공·산업분야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사례와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전략이 발표된다. 로크웰오토메이션, 아미존웹서비스, 삼성전자의 기초 강연을 포함해 5개 트랙·12개 세션에서 총 39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마지막날인 13일에는 IoT 직무설명회가 열린다. 직무설명회에서는 'IoT, 취업의 문을 열어라!'를 주제로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IoT 산업동향과 5개 직무분야(서비스·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보안)에 대한 설명과 취업준비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김병일 기자

양도양수·분할합병·신규면허

기업인수합병 등록기준신고 전기·통신 기업 진 단 소방·건설 개인면허 법인전환

신규등록/합병/분할/양도/임차권실행/재무구조개선



(주)프라임엠앤에이

TEL : 031)214-5221 H.P : 010)4477-8916 FAX : 031)214-522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16, 1418호 (광교코아루에스 오피스텔)

GREENLUMEN
www.apexint.co.kr

We think the value of human, Technology and environment
인간, 기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신·재생 에너지 / LED 조명 전문가기업 에이펙스 인텍 (주)
'Lighting On Valuable Environment'

2017 에이펙스인텍, 한국도로공사 서울의광순환선 ESCO LED고개 사업 '선정' 초달일 우수제품 선정(LED기포등기구, 보안등기구, 터널등기구, 투광등기구, 실내조명등)

● 태양광 방광장치/태양광 가변등, 보안등 거동면거형, 독립형, 중앙광계 CCTV방범등/ESS/스마트조명

APEX INTEC 에이펙스 인텍 (주)

본사/제1공장
경남북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대로 619-9
TEL: 054-7657-9 FAX: 054-767-7672-1

제2공장
경남북도 구미시 강호대로 339-9
TEL: 054-977-7657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188
우림리더온쇼핑센터 C동 908호 TEL: 02-206-2610-2 FAX: 02-206-2623

A/S 및 고객상담전화
054-976-7667
월~일요일 09:00-18:00 / 토요일 휴무

GSC-075IE2 CCTV방범 방범등

GHO-400M1 고출력등 / 스포츠조명

GI-150NC11 공장등 / 고출력등